어린이 책꽂이

▲거울공주=2000년 아동문예문학상 수상으로 등단한 동화작가 김경옥씨의 창작동화. 거울을 통해 겉모습에 가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담았다. 겉모습 만으로 상대를 판단해 버리는 아이들에게 진짜 얼짱 몸짱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처음주니어·9천500원〉

▲피카소에 빠진 베티나와 미술 악동들='살림 별난 지식동화' 시리즈 두번째 권. 엉뚱하고 자유분방한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통해 현대미술이 얼마나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팝아트 등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현대미술 용어들을 알기쉽게 동화 속에 녹여냈다. 〈살림어린이·9천500원〉

▲재커리 비버 우리마을에 오다=미국 텍사스주 앤틀러시를 배경으로 세 소년이 사춘기를 거쳐 커가는 과정을 그려낸 성장소설. 작가 킴벌리 윌리스 홀트가 어린시절 루이지애나주 축제에서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소년을 만났던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 첫사랑 등 10대들이 앓는 가슴 찡한 성장통을 담았다. 〈어린이작가정신·9천500원〉

▲한국대표 낭송동시 100편=지난 8월 나온 '한국 대표 동시 100편'에 이어 나온 책으로 낭송하기 좋은 시 100편을 골라 실었다. 어린이가 고운 말, 바른말을 쓰도록 돕기 위한 책으로, 학년별로 낭송하기 좋은 시들을 골랐다.이준관의 '사박사박', 김미혜의 '네모난 수박' 등 맑은 언어로 구성된 시들이 담겼다. 〈큰나·1만5천원〉

▲자유의 노래='양철북 인물이야기' 시리즈 두 번째 권. 차별과 억압에 맞서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얻기 위해 평생을 저항하고 헌신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삶과 정신을 담았다. 마틴 루터 킹이 남긴 정신적 가치,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덕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철북·1만800원〉

▲안녕 하느님=호주출신 작가 모야 시몬스가 쓴 산문집. 책에 나오는 '하느님'은 특정 종교와 관계없이, 세상을 보살피는 거대한 사랑, 그리고 주인공 케이트가 아픔을 딛고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는 존재로 등장한다. 귀여운 투정처럼 시작한 케이트의 고백은 동생의 탄생과 스테파니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국민서관·9천원〉

▲달이, 구만 리 저승길 가다=바리공주 신화를 모티브로 한 판타지동화로 작가 이성숙씨의 작품이다. 달이는 떠나 버린 아빠로 인한 상처 때문에 달이와 별이를 돌보지 않는 엄마와 할머니, 동생 별이와 함께 산다. 그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저승길에 관한 전설이 내려온다.

〈한겨레아이들·9천원〉

▲군고마 잔치=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날, 호호 할머니와 아이들은 낙엽과 나뭇가지를 모아 모닥불을 피운다. 그리고 알루미늄 포일로 고구마를 감고, 젖은 신문지로 싸서 모닥불 안에 집어넣는다. 이어 감자, 토란, 사과, 귤, 마시멜로는 물론 빵과 카스텔라까지 굽는다. 과연 먹을 수 있을까. 〈한림출판사·9천원〉

세상을 지배할 9개 트렌드를 주목하라

앞으로 3년 세계 트렌드

김상훈·비즈트렌드 공저

야구에서 우수한 타자와 그렇지 않은 선수의 차이는 몇 초 후의 상황을 예측하느냐에 달렸다. 투수가 그날 경기에서 즐겨 던진 공과 중요한 순간에 선택하는 결정구가 직구인지 변화구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또 포수가 투수에게 요구하는 볼 배합을 예측하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수비수들의 사전 동작과 수비위치 등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들의 움직임에는 투수가 타자의 몸쪽이나 바깥쪽으로 공을 던질 것인지에 대한 단서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강타자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몇 초 후 투수가 자신에게 던질 공을 미리 생각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처한다.

반면 아무런 준비 없이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구질의 공에 헛스윙을 하게 마련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0번의 타석에서 3번의 예측만을 적중시켜도 강타자의 기준인 3할 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다. 10년 후는 중요하지 않다. 가까운 미래에 존재하는 3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 또한 3년 후를 내다보는 예측 중 극히 일부만 적중하더라도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서울대 경영대 김상훈 교수와 사회 흐름을 연구하고 있는 '비즈트렌드'가 공동으로 '앞으로 3년 세계 트렌드'를 냈다.

경제·경영, 소비, 사회, 문화, 기술 등 5개 분야로 나눠 세상을 지배할 9개의 트렌드를 뽑아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를 뒤덮을 가까운 미래의 핫 트렌드를 한 권에 담아냈다.

저자들은 경제의 핵심 키워드를 '파워의 이동'으로 지적했다. 글로벌 경제가 금융 위기로 심각한 도전을 받으면서 세계 경제의 힘이 분산되고, 미국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다중심 글로벌스탠더드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또 책에 따르면 3년 후에는 온·오프라인의 마케팅이 최적화되고, 자신을 위한 소비가 늘 것으로 내다봤다. 또 럭셔리 소비와 노년층의 신개념 소비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으로 3년 세계 트렌드'는 3년 후 세계의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대 도시들이 등장해 국가간 경쟁이 아닌, 도시간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광주시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

메가시티의 등장으로 도시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안교육이 교육의 미래로 뿌리내리는 것도 새로운 사회 변화로 손꼽혔다.

이 밖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로봇의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트렌드를 먼저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IBM 전 CEO 톰 왓슨은 "전 세계에 컴퓨터는 5대면 충분하다"고 예언했고, 빌 게이츠는 "미래의 컴퓨터 메모리 크기는 640K면 넉넉할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모두 빗나갔다.

이 때문에 이 책이 만능이 될 수 없다. 단지 미래의 다양한 예측을 미리 보는 재미는 있다.

〈한스미디어·1만3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자들의 속마음 들여다보니…

영애씨, 문제는…

김윤경 지음

여자들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 봤다. 가식 같은 건 없다. 꺼리낌도 없다.

'보그', '슈어' 등 패션지에서 피쳐 에디터로 글을 쓰고 현재 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인 김윤경씨가 이 땅의 여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아 '영애씨, 문제는 남자가 아니야'를 펴냈다.

'여자 마음 사용 설명서'라는 부제가 붙은 책은 저자 본인과 고민 많은 주변 여자들의 솔직한 입담을 그대로 풀어낸 책이다. 저자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여자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또 인생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나섰다. 책은 '여자를 키운 8할의 딜레마 엿보기', '내 진짜 속마음 만나기', '네가 아닌 나로 살기' 등 모두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밥벌이의 지겨움, 독립의 두려움'에서는 직장인의 딜레마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고 '쓰는 즐거움, 모으는 즐거움'에서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맛깔스런 입담과 솔직함이 이 책의 미덕이다. 툭툭 털어놓은 필자의 고민과 다양한 등장인물들(일부는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로부터 건네지는 이야기는 또 다른 응원가다.

〈웅진지식하우스·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체스 세계챔프의 사랑 이야기

13월의 연인들 1, 2

나자혜 지음

2005년 소설 '아이스크림처럼, 레몬처럼'를 낸 이후 매년 장편소설을 발표하고 있는 나주 출신 신예작가 나자혜(33)씨가 로맨스 장편소설 '13월의 연인들1, 2'을 펴냈다.

특별한 소재와 개성적인 캐릭터를 개발한 소설쓰기에 전념해 온 나씨의 이번 소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체스게임을 소재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소설은 체스 세계챔피언 레오 한, 한국명 한석주와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어 우혜린과의 사랑 이야기를 섬세한 문체로 풀어나간다.

소설은 생경한 소재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치밀한 구성과 개성 강한 캐릭터로 재미와 감동을 불어넣어 쉽게 읽힌다. 특히 타인이 연인이 되는 과정, 개성 강한 사람들간의 미묘한 감정을 매끄럽고 세련되게 표현했다는 평이다. 또 이번 소설은 체스 게임을 통해 삶과 인생을 조명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배어난다.

아마추어 체스 플레이어이자 야구광인 나씨는 '얼음불꽃' 등 두 편의 장편소설을 출간했으며 지난해 여름부터 홈페이지 '연어와 해파리'(www.lovenwisdom.com)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에 머무르며(뉴욕 컬럼비아대학 영문과 박사과정) '체크 메이트 : 여왕과 흑기사'라는 소설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가하·각권 9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 자존 높였던 호남인물들

호남사람 이야기 …

남성숙 지음

광주매일 남성숙 논설주간(47)이 최근 '호남사람 이야기-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인물 150'을 펴냈다. 이번 책은 남 주간이 지난 1996년 발간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호남인물 100'의 증보판 격이다.

책에는 백제시대 일본으로 건너가 아스카 문명을 이끌었던 왕인박사부터 올해 7월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역사의 위기 때마다 한국의 '자존'을 높였던 호남인물의 진중한 영혼이 담겨 있다.

또 해상왕 장보고, 조선시대 왕도정치를 주도했던 최산두, 호남 최초의 의병 김천일, 민본주의 충절 안방준, 조선후기 대표화가 윤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아버지 송홍, 6월의 민주열사 이한열 등 시대를 풍미했던 호남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저자는 "호남인은 민족 수난의 시대 때마다 불사조처럼 일어나 절의정신이나 대의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냈다"며 "이런 절의의 1000년 전통과 역사의 힘이 뭉쳐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까지 그 정신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저자는 호남의 사상과 문화의 맥을 인물을 통해 탐구하기 위해 앞으로 1,000명의 이야기를 담는다는 계획이다.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스컴·2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문공인중개사
☎ 062-365-1920

모텔 임대 매매 전문
• 신축 무인텔 급임대
무인텔 월매출 5천이상
4억5천에 월 1,500만원
신축모텔 부지다량확보!
• 일반모텔 월매출 5천이상
급 매매가 15억원
은행대출 8억
실투자금 7억 OK
• 전국 모텔 임대 매매 전문
⇒손님이 와글와글하고 알짜배기 모텔!
• 순천 모텔 임대
보증금 3억 월 900만원
목포 해안도로쪽 모텔
급 매매 다량 확보!

교환
• 목포⇒모텔,사우나, 주차장, 세차장
• 대지
⇒350평, 건평 600평 월순소득 2,000만원 이상 확보
• 교환조건
⇒모텔, 땅, 토지, 임야 해남권
⇒독점 모텔 매매가 5억7천 월순소득 1,500만원 이상 확보!

모텔임대사업
• 3~4억 투자하시면 매월 1,000만원 이상 소득 확보! 등기필 100%

010-7637-7743,010-4703-6223,011-623-8972

동북아 경제 중심지..
서해안, 새만금을 주목하라!
새만금~변산~고사포~격포~상록~모항 해수욕장 까지의 투자 벨트 형성
○검증된 추천 물건○
• 상록해수욕장이 보이는 펜션부지
300평(전) – 평당 80만원
150평(전) – 평당 80만원
470평(답) – 평당 150만원(상가 및 펜션,분할가능)
• 격포 바닷가, 펜션, 모텔부지
500평 – 평당 180만원(대,전,모텔,1동 포함)
• 전원주택 및 투자부지
1000평 – 평당 25만원(답)
500평 – 평당 60만원(부안댐앞,주택1동포함)
1200평(전)–평당 35만원 (2~300평 분할가능)
- 투자물건 다량확보중(소액부터 다액까지)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으로 펜션 투자시, 광주지역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는 년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2010년초 방조제 개통으로 지금이 투자 적기
*오랜 실무경험으로 매입에서 매도까지 책임중개
• 상가/모텔 투자 물건(지상 5층)
완도읍, 중심 상권내 대지 80, 건평 320평 매매가 10억
보증금 4,000만원 월 매출 1,230만 이상
서해안·새만금 지역 전문 중개업소
보 임 공 인 중 개 사
상담환영 : 062-527-8844/010-8004-5900/016-609-5888

부 동 산 투 자 클 럽
T. 011-641-0925, (062) 515-4985
상가건물(롯데백화점 인근, 현 성업중)
대 453㎡ / 건 2011㎡(사우나+원룸21실+주택)
- 수익률 15%이상 매매가 20억(실정 10억, 조정가)
▶상가건물(완도읍 여객선터미널옆) 대 260㎡/ 건 989㎡(상가+모텔19실+주택) 수익률 아주 좋음 매매가 10억(조정가)
토지(광주호상류-가든식당, 과수원, 임야)
- 34.830㎡ 매매가 3.3㎡당 12만원(분할가)
▶농지(무안군 운남면) 23.600㎡(바닷가,계획관리지역) 매매가 3.3㎡ 당 20만원
대지(신촌동) 764㎡(버스승강장접, 전철역 5분거리)
- 매매가 ㎡당 36만원(원투룸, 빌라, 물류창고적합)
▶고시텔(전대후문 체육공원 인근) 대 282㎡ 건 560㎡ (최근준공) 룸52(룸당 월임대료 23만원) 매매가 8억5천
대지(북구 신안동)402㎡(물류창고최적)
- 매매가 3.3㎡당 150만원
▶농지(전.담양군 금성면) 883㎡ (관리지역) 매매가 3200만원(조정가)
농지(충효동-광주호상류)전 1,927㎡
- 각종 유실수 100여 주식제, 매매가 ㎡당 9만5천(가격조정가)
▶가든식당(월출산국립공원 입구) 7,665㎡ 식당, 숙박업, 단란주점, 체육시설, 농장 모든시설 허가 필 - 매매가 3.3㎡ 당 32만원
경매부동산상담, 대출상담, 각종부동산투자상담
부동산투자클럽 공 인 중 개 사 무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용봉동 하이마트 옆)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0.01.21.(목) ~ 2010.01.26.(화) / (총 6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극기관 3층 305호
◎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개발업 3년 종사) 건축사, 건설기술자(고급·특급), 자산운영관리인력 등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해당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법인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금융기관중 개발업무 관련 종사자, 개발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 교육비 : 67만원 (교재 및 점심식사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문/의/전/화 www.gred.kr
• 원장 이명규 교수 062)670-2421 •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 부원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f.062)233-3117